

■ 2026 새해설계 이민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회장

# “여성 경제인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하겠다”

공공 조달시장 확대·정책적 기반 마련 등 목표

회원 경영 전문성·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

“여성 경제인의 새로운 도약, 우리 함께 만들어 지역 경제에 말처럼 힘찬 활력이 넘치길 기대합니다.”

이민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여성 경제인의 성장이 곧 지역 경제의 미래다. 올해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는 여성 기업인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순 회장은 올 한 해 동안 공공 조달시장 확대와 여성 기업의 혁신성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다지고 활발한 교류의 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다

졌다.

지난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정부 부처 중 최초로 ‘테크 산업 육성’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펌테크는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산업으로, 이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육성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것에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평가했다.

펌테크는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어 이 회장은 올 한 해 사업목표를 ‘여



성기업의 성공을 돕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은 회원의 경영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며 “내수와 수출 판로 확대를 중심으로 여성기업의 사업 체질을 강화하고 글로벌 프론티어 를 운영해 해외 시장 개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 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디지털 교육을 진행하고 AI활용 능력을 제고하겠다”며 “여성기업이 경기 쉬운 정보 부속과 네트워크의 한계를 교육과 현장 연계를 통한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기술 기반 업종에서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높 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직 강화 및 상생과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강조했다.

올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는 협력을 강화해 여성기업이 더 많은

성장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 회장은 “협력과 상생의 생태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회원서비스를 강화해 회원사가 체감하는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30 여성기업인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주니어보드를 운영하고, 업종별 네트워킹을 촘촘히 지원해 회원사 간의 교류와 협업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유관 기관·단체·기업 교류 촉진을 통한 회원사의 판로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이민순 회장은 “정부를 비롯해 공공기관, 기타 협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여성기업이 더 많은 성장 기회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여성기업이 새로운 시장

과 프로젝트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히고, 협력과 상생의 생태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올해는 붉은 말의 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는 드넓은 광야를 함께 달리는 적토마처럼 뜨거운 열정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여성기업의 더 큰 내일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999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 법정 여성경제단체다.

협회는 여성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펌테크 산업육성, 글로벌 진출 확대, 2030세대의 창업 및 영입, 업종별 협업 네트워크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달러 상승세...개인간 중고거래 움직임 ‘활발’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외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 개입 이후 반등했음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달러 사재기’ 움직임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지난 14일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지난달 24일 이후 최고 수준인 1470원 후반대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달러 수요자들 중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실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현재 환율로 1만 달러까지 대량 구매한다’, ‘미국 달러 삽니다’ 등 외화, 특히 미국 달러를 사고판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남은 달러를 시세대로 판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개인 간의 외화 거래가 단순한 신고 의무 위반을 넘어 불법 금융행위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시행중인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차액 노림수·수수료 부담...플랫폼에 글 속속 올라와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 판매도...소액 제재 쉽지 않아



지난 16일 서울 명동 환전소에 외화 시세가 게시돼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에 다시 1.470원 위로 상승했다.

거래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등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매매자의 목적의 거래나 일정 금액 초과 거래는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5000달러 이내에서

국내 거주자간 개인거래와 화폐 수집용 및 기념용 매매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외환당국의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별다른 관리나 제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달러 사재기는 여전히 실정이다.

지난 13일 기준 하루 5대 은행에서 개인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금액은 1744만달러로, 지난해 1~11월 일평균 환전액(1043만달러)보다 70% 가까이 많았다.

이에 반해 개인이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할 금액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 까지 총 9031만달러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외화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원화 가치 하락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당국이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윤상용 경제학박사는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달러 사재기나 개인간의 거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환율이요동친다면 안정화를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인상 등과 함께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수 있지만 당국에서 쉽게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광주노동청,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시행

비수도권 기업 최대 720만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6일부터 청년과 중소기업의 상생 도모를 위한 ‘2026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기업은 만 15~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다. 기업에는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근속 시 지역 여건에 따라 480만원에서 최대 720만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로또 1등 17명...당첨금 각 17억3000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 120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0, 22, 24, 27, 38,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7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7억332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5710만원,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65명으로 146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802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5만6042명이다. 연합뉴스

PRIMUM LIGHTING SYSTEM

# EXVISTA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그 빛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력  
빛과 기술을 창조하는 진우엘텍입니다

## 국내유일 자체생산 및 직접시공 스포츠조명은 진우엘텍!

“ 고객이 원하는 고객을 위한 기업 진우엘텍입니다 ”



### 진우엘텍 ONE-STOP 서비스

자사의 원스탑 서비스 (One-Stop Service) 를 통해 고객은 조명의뢰 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처리되는 간편한 시스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공정은 직접 처리되는 만큼 서로 정확하게 일원화 되어있어 시공이 끝난 후에도 완벽한 사후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 01  
고객 상담  
및 의뢰
- >
- 02  
현장 답사  
및 설계
- >
- 03  
제품  
생산
- >
- 04  
직접  
시공
- >
- 05  
유지  
관리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1동 1008호  
공장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90  
홈페이지 : www.sports-lighting.co.kr

조명설계 및 제품문의  
**032.329.7160**  
KOREA NO.1 SPORTS LIGHTING  
JINWOO ELTEC